

미국과 유럽을 거쳐 세계적 흐름이 된 클린 라벨

클린 라벨이란 199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합성 첨가물이 없고, 단순한 원재료 및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최소한의 가공 공정을 거치는 등 섭취 시 건강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여겨지는 제품들에 부여된다. 현대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클린 라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클린 라벨은 특정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인증제도는 아니다. 소비자들은 인공 성분이나 합성 화학물질이 없는 식품을 찾고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는 그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제조업체간의 신뢰를 클린 라벨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럽, 미국을 거쳐 중동에서도 클린 라벨 제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동지역은 열악한 기후 환경에서 비롯된 불안정한 식량 안보 문제가 큰 골칫거리다.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국가 최대의 고민거리다. 중동 소비자들은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의 구매를 망설이지 않는데, 그 점이 바로 클린 라벨 제품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중동지역에서 선호하는 클린 라벨의 종류는?

식품 리서치 업체 Kerry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개인의 건강과 환경 문제를 클린 라벨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반면, 중동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구별되는 선택 요소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우선시 하는 클린 라벨 요소로 '종교식 준수 여부'였으며 다음으로 '인공 첨가제 및 보존제 첨가 여부', '살충제 및 오염물질 함유 여부'를 꼽았다. 식품의 성분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안전해야 클린 라벨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클린 라벨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터키의 소비자들은 클린 라벨 제품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로 'GMO', '유기농', '인공 첨가제 및 보존제 첨가 여부'를

꼽았다. GMO 기준이 유난히 엄격한 터키이기에 소비자들 또한 GMO 함유 여부가 식품 소비에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 듯 보인다. 또한 터키에서 '트랜스 지방'은 음료, 빵, 과자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다른 지역의 소비 시장에서는 중요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렇듯 클린 라벨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각 지역의 문화와 소비자들의 인식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중동지역 클린 라벨의 예

UAE의 복지정책과(National Program for Happiness & Wellbeing)는 최근 모든 사전 포장 된 식품에 대해 색상 코드로 분류된 영양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의 영양 함량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각 영양소의 위험도에 따라 빨강, 노랑, 녹색의 세 가지 색상으로 표기하게 한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클린 라벨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제도로서, 라벨의 명시성과 주목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한 눈에 영양소의 종류와 그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에서 더욱 확대될 클린 라벨의 범위와 중요성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을 포함한 중동 지역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사회적 문제는 바로 비만을 비롯한 국민 건강이다. UAE의 비만율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전체 인구의 1/3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중동 각국의 정부에서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건강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클린 라벨을 통한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유도 정책 또한 그 중 하나이다. 현재는 사전 포장된 식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클린 라벨은 점차 음료, 신선 식품, 즉석 조리식품 등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다.

| UAE에서 시행 예정인 영양소의 색상 분류 예 |



Key Point

원료 단순화와 천연재료 적극 사용

먹거리가 다양하고 풍부해질수록 소비자들은 양보다 질을 우선 시하게 되며, 특히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게 된다. 고소득자의 비율이 높은 중동 지역에서는 값이 비싸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찾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소비자들의 클린 라벨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클린 라벨에 대한 국가적 규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산 식품들도 원료를 단순화하고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클린 라벨 트렌드에 맞춘 식품 가공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 첨가제 및 보존제의 함유 여부는 중동 지역에서 특히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